

#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 학술대회 내년 군산 개최

내년에 치러질 제11회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 학술대회 개최지로 군산이 결정됐다.

23일 전북도수산업기술연구소에 따르면 19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 중앙연합회 이사회에서 내년 학술대회 군산개최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 학술대회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수산 신지

## 침체된 전북 수산업 도약계기 마련 기대

신인 우수사례 발표 등 신기술 정보를 공유해 개별 대응능력 향상 및 국내 수산업 위기 타개를 위해 마련된 전국대회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수산 신지식 선진지에 대한 인증서와 정부표창 수여 ▲수산 신지식인 성공사례 발표

▲수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 ▲지자체 수산업기술사업소 우수 지도사례 발표 등이다.

이번 군산 개최로 침체 위기에 있는 전북 수산업 위상제고와 해양 수산인들의 자긍심 고취, 해양 수산업 활력 증진 돌파구 마련, 해양 관광자원 홍보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 동안 체계적인 유치활동 및 수산신지식인전북연합회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군산개최를 이끌어냈다"며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 신지식인은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01명이 선정됐고 이 가운데 전북은 22명이 포함돼 있다. /고민형 기자

## 도, 지진대응체계 구축 2020년까지 총 778억 투입

전북도가 오는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차원의 지진방재대책 마련을 위해 총 7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도가 최근 경주지진(규모 5.8)을 계기로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달 초 '전북도 안전조립정책'을 거쳐 지진방재대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지진방재 종합계획'과 함께 오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전북도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용역에는 도내 및 인근지역 단층대 조사 및 지진발생 현황 분석, 국내외 지진피해 및 대응사례 조사, 지진취약지역·시설물 분석, 지진대비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등의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국비지원'과 '도내 지진취약지역 단층조사 추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유도'를 위한 '국세 감면' 등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고민형 기자

## 전북, 기업부설연구소 증가

전라북도에서 기업부설연구소가 꾸준히 설립되고 있다.

지난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10월 현재 도내 기업부설연구소는 736개소이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2014년에는 613개소였고, 지난해에는 683개소였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53개소가 늘어 700개소를 돌파했다.

이는 매년 약 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향상된다"고 밝혔다. /뉴스



지난 21일 울산광역시 현대중공업 본사를 찾은 송하진 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은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과 강환구 시장과 면담을 갖고 군산조선소의 위기상황과 군산 조선소의 유지 필요성을 설명하고 선박 건조 물량 배정을 요청하고 있다.

## 송하진 도지사, 현대중공업 본사 방문... 지역경제 위해

위기상황·유지 필요성 설명, 물량 배정 요청 건의서 등 전달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 등이 지난 21일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조선업 경기 부진에 따라 군산조선소가 작업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배정된 LPG선박 2척마저 지난 7월 울산본사로 이적되면서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작업물량이 없는 상황으로 군산조선소의 위기상황과 유지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

더욱이 작업물량 소진으로 군산조선소와 협력업체 근로자 등 700여명이 이미 실직을 한 상태이며, 배정된 선박 건조작업이 완료되는 내년 1분기 이후에는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이 예

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방문단은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과 강환구 대표와의 면담에서 군산조선소의 위기상황과 유지 필요성을 설명하고, 군산조선소에 선박 건조 물량 배정을 요청하는 건의서와 군산상공회의소 건의문 등을 전달했다.

또한 군산의 대표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토로하며, 2018년부터는 조선업계의 회복세가 전망되므로 군산조선소가 내년 1년 동안 도크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선박 건조 물량의 지역적 안배를 요청했다.

특히 군산조선소의 경영효율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

역경제 유지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의 접근과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시 지난 10여년의 시간을 투자해 구축된 시설 및 기술 인력의 막대한 인프라 손실과 재가동시 인력 확보 시간 및 시설 운영 구축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소모를 강조했다.

방문단은 "군산조선소는 도크가 1개 뿐이어서 도크 폐쇄는 대량실업과 전북산업의 대량 붕괴로 이어지며 경제 적 손실과 엄청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선박 건조 물량을 지원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해 권오갑 대표를 만나 군산조선소에 물량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지난 21일 국립 군산대학교 박물관은 장수군 침령산성에서 호남지방 최대 규모의 원형 집수시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집수시설은 축조기법과 형태로 미뤄 후백제 시기인 9세기 이후로 추정되고 있다.

## 장수서 호남 최대 원형 집수시설 발견

침령산성에서... 직경 9m · 깊이 4m 내외 크기

장수에서 호남지방 최대 규모의 원형 집수시설이 확인됐다.

지난 21일 장수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허가로 국립 군산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장수 침령산성(전라북도 문화재 제176호)에서 호남 최대 규모의 원형 집수시설을 발견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규모는 직경이 9m, 깊이가 4m 내외로 호남에서 확인된 원형 집수시설 가운데 최대다.

집수시설의 바닥에는 납작한 석재가 깔렸으며, 뒷 부분은 누수방지를 목적으로 접도를 다져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수시설의 바닥에는 납작한 석재가 깔렸으며, 뒷 부분은 누수방지를 목적으로 접도를 다져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내부에서는 나팔여(신라 말, 고려 초기) 시대의 기와편과 토기 등을 비롯해 철촉 등 철기류와 도르래 등 200여점의 가공 목재가 출토됐다. 이 중 도르래는 국내 최초로 집

수시설 배수로의 수문을 여닫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돼 석공 및 건축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량은 적지만 청자의 초기 형태를 보이는 도기가 출토됐는데 이는 최근 발굴 조사가 이뤄진 전북 진안의 중령 청자가마터 출토품과 흡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군과 군산대 박물관은 건축기법과 형태, 출토 유물 등으로 미뤄 집수시설이 후백제 무렵인 9세기 이후에 축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집수시설의 조사와 발굴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의미 있는 사료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군산대 박물관과 함께 침령산성의 성벽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스

## 전북 햅쌀 추가수매 3만5천톤

최종 물량 내달 중순 확정... 연말까지 매입 방침

전북도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생산된 쌀에 대한 추가수매(시장격리) 물량 3만4,765톤을 매입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매입 결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9일 추가수매 물량으로 25만톤을 잠정 결정 후 시도별 매입물량을 배정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에서 26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연내에 매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추가수매 최종 물량은 통계청의 실수확량 발표시점인 내달 중순경 확정

될 것으로 보인다.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지급되며, 우선지급금(4만 5,000원/40kg)을 매입시점에 지급하고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중 차액을 정산할 예정이다. 하지만 향후 산지 쌀값 추이에 따라 이달 중 우선지급금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이뤄지도록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